

이지상의 '여행과 삶'



삶의 활력은 흔들림에서 온다

인간은 익숙한 생활, 안전을 원하면서 도 막상 그것이 달성되면 권태를 느끼고 모험을 원한다. 옛날부터 여행은 궤도를 떠나 고난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귀환하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었다. 지금도 배낭을 메고 용감하게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인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는데 지쳐서 휴식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하루 종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직장 생활 혹은 일상 생활은 지겹다. 하루 이틀이지 몇 년, 몇 십 년을 똑같이 생활하면 몸과 마음에서 불기가 쑥 빠져나간다. 수십 년 전 파리에서 살았던 알베르 카뮈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장치가 붕괴할 때가 있다. 기상, 전자, 사무실 혹은 공장에서의 네 시간, 식사, 전자, 네 시간의 노동, 식사, 수면 그리고 똑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 행로는 대부분의 경우 용이하게 계속된다. 다만 어느 날 무엇 때문이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며 모든 것은 놀라움에 채색된 권태 속에서 시작된다.(알베르 카뮈의 시지프의 신화에서)

요즘도 많은 이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다. 물론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많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다. 그러나 이런 명확한 이유들도 반복되는 일상 앞에서는 빛이 바랜다. 지쳤기 때문이다. 그때 궤도를 이탈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자라난다. 궤도를 이탈한 이들은 대개 2, 3년 정도는 자유를 만끽하며 인생을 즐긴다. 카페디옴, 즉 미래보다는 현재에 몰입하여 순간을 즐긴다. 현재가 너무도 짜릿한 그들에게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중요치 않다.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도 문제는 생긴다. 낯선 곳에서 속소를 찾고, 구경을 하고, 사람을 사귀고, 이런저런 사건을 겪다가 다시 떠나는 행위가 익숙하게 되풀이되면 어느 날 다시 '무엇 때문에'라는 의문이 고개를 든다. 권태와 회의는 놀라게도 방향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일상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방향감에서도 권태를 맛보는 사람들은 그 허무를 마약이

나 섹스에서 종종 찾는다. 예전에 서양이나 일본의 히피들이 그 길을 갔었다. 직장에서 짧은 휴가를 내 여행하는 이들은 가끔 만나는 장기 여행자들이 부럽지만 그들도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단지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장 크르니에가 말한 것처럼 "방탕한 생활에 빠져버린 이의 관심을 끄는 곳은 댄스홀이나 쾌락의 거리가 아니라 어둠이 내릴 무렵, 여인들의 웃김과 나직한 유희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가는 한갓진 골목길들"이다.

인간에게는 종종 '어둠 속의 한갓진 골목길' 같은 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너머서 무한의 세계에 녹아들고 싶은 본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여행만 하거나, 쾌락에 빠지거나, 무한의 세계만 향하며 살 수는 없다. 자신의 생계와 가족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현실에만 묻혀 살면 삶이 너무도 답답해진다. 이 양극단 사이에서 생기를 불려내며 살기 위해서는 줄

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되 가끔 이탈을 즐겨야 한다. 직장인이려면 휴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실에서 열심히 일하다 탈출하듯이 떠나는 여행은 매우 짜릿하다. 너무, 자주 여행 떠나는 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또 은퇴 후에 노년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다. 고향과 시대에기에 60대들도 활기차게 여행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한 시절을 꼭 참고 탐 들린 댓가다.

이처럼 활력과 삶의 생기는 하나의 위치, 하나의 상태에서 오지 않고 '흔들림'에서 온다. 하나의 장소, 하나의 길속에 멋진 삶,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이탈을 오가는 가운데 그걸 느낄 수 있다. 삶의 의미와 목표도 중요하지만 떠나고, 돌아오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뺏고 또 그걸 버리고 떠나는 가운데 생성하고, 소통하며, 다시 출발하는 흔들림이 더 중요하다. 인간은 그렇게 생겼으며 또 급변하는 현대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가>

의료칼럼

선글라스 선택법



박정원 광주안과 원장

봄과 여름철은 다른 계절보다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많기 때문에 피부나 눈에 더 많은 자극과 피로를 주는 계절이다.

특히 휴가를 맞아서 놀러가는 해변이나 바닷가의 자외선 반사율은 지상보다 높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게 좋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장시간 자외선에 눈이 그대로 노출됐을 경우에는 검열반이나 의상편, 백내장 그리고 황반변성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눈에 생기는 화상인 광각막염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처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다.

선글라스를 구입할 때는 디자인보다는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 선글라스를 흔히 자신의 스타일을 살리기 위한 패션 아이템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눈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선글라스를 고를 때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코팅이 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게 좋고 안경원에서 자외선 차단지수가 얼마인지 꼭 확인을 한 뒤 구입하기 바란다.

선글라스 렌즈의 진하기와 자외선 차단 지수와의 상관성이 없다. 흔히 렌즈 색이 진할수록 자외선 차단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너무 짙은 색의 렌즈는 통과하는 광선의 양이 줄어들어서 동공을 커지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선글라스 렌즈 색상의 농도는 선글라스를 쓴 사람의 눈이 밖에서 들여다보일 정도인 75~80% 정도가 적당하다.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렌즈의 색상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선글라스 렌즈는 색상별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선택하는 게 좋다. 먼저, 렌즈의 색이 갈색인 경우에는 단파장의 자외선 흡

수를 차단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후에 눈을 보호하는 용도로 적합하다. 청색은 빛을 잘 통과시켜서 시야가 넓고 선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운전이나 야외활동이 많은 경우에 착용하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빨강이나 보라, 파랑, 분홍 등 원색렌즈는 사물의 색을 왜곡해 오히려 눈을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다. 회색은 빛의 모든 파장을 균일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다. 선글라스는 인터넷보다는 직접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입해야 한다. 선글라스 렌즈색은 도포 상태가 고르지 않거나 잔 흠집 혹은 거품이 많은 렌즈는 상이 왜곡돼 눈을 피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얀 종이 위에 렌즈를 대거나 햇빛에 비춰서 색의 도포상태나 흠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글라스와 눈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고 선글라스를 쓴 상태에서 한쪽 눈을 감고 선글라스를 위 아래, 좌우로 움직여서 사물에 변형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또 선글라스를 구입하기 전에는 직접 5분 정도 착용해서 사물이 휘어 보이지 않은지 착용감이 편안한 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게 중요하다.

어린이들의 선글라스를 구입시에는 안전한 렌즈를 선택해야 한다. 강한 햇빛에서는 어른 뿐 아니라 아이들도 눈이 부셔서 눈을 뜨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야외 활동시 선글라스를 착용해줘야 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선글라스 중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 없이 단지 색만 입힌 불량 선글라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할 때 이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활동성이 높은 어린이들이 부주의로 인해서 렌즈를 파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렌즈를 선택하는 게 좋다.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렌즈는 충격에 강하고 외부충격 때문에 렌즈가 파손되더라도 파편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렌즈이다. 이와 함께 라식, 라섹 수술 후에는 꼭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한다.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시력교정 수술을 받은 직후라면 자외선은 더욱 눈에 좋지 않다. 이 때문에 라식수술 후에는 최소 하루에서 라섹 수술의 경우에는 3주 정도까지 외출시에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한다.

기고



김인천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

역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은 실크로드를 통한 문물 교류, 혹은 침략을 통한 점령 등을 통해 자의든 타의든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해 왔다. 아시아와 유럽대륙은 전 세계 면적의 33%, 인구의 60%, GDP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해 최근 유라시아(Eurasia)를 무대로 한국과 중국, 러시아 3국이 각각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구상'으로, 중국-중앙아시아-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벨트와 중국-동남아시아-아프리카-유럽 버팀줄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동시에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셈 문화장관회의, 광주 알리는 기회로!

<ASEM·아시아-유럽>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설립했다.

러시아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을 광역화하기 위한 '신동방 정책'을 통해 경제난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철도로 엮어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렇듯 아시아와 유럽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생적 협력체 구성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아시아는 다양성을, 유럽은 보편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상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유럽간 경제협력의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교류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측면에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문화와 창조경제'를 주제로 열리는 제7차 아시아-유럽(ASEM·아셈) 문화장관 회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51개국과

2개 국제기구(ASEAN·EU) 문화장관 등 대표단 200여명이 참석한다. 각 국가의 대표적 문화 브랜드를 인류의 다양한 문화로 향유하기 위함이다. 아시아와 유럽 간 협력을 통해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도구로서 '창조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끌어내는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국가적으로도 아셈 문화장관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특히, 광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남도의 다양한, 독특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자발적인 시민참여 의지를 결집하고 전략적인 도시마케팅 단안을 모색하기 위해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9개반 20개 부서로 '행정지위단'을 구성해 종합안전대책 등 27개 과제를 추진하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우수한 남도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기 위해 20일부터 26일까지를 아셈문화주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광주의 문화적 다양성을 충분히 활용해 '오매(五魅) 광주'라는 브랜드 명으로 '프린지 페

스티벌'을 펼친다.

전통가옥과 남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과 템플스테이는 물론, 남도 예향의 맛을 만끽할 수 있는 테마별 남도문화 나눔이를 마련하고 있다. 오는 23일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열리는 '동유 남도만찬'에서는 남도한정식 메뉴를 특별히 구성하고 빛의 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디자인 경관조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공연행사를 마련한다. 5·18 민주광장 꽃벽과 문화정원 설치, 금남로 보행환경 개선, 금남로·광주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 등도 아셈 문화장관 회의 전에 완공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하는 아셈 문화장관 회의는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유일의 국제행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광주를 전 세계에 널리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펼쳐버시아드로 치러낸 문화적 역량과 150만 시민의 신속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청결한 도시환경, 교통질서 준수 등 각 분야에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社說

'새 정치' 약속했던 국회 정쟁 구태 재연하나

'새 정치'를 약속했던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조짐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20년 만의 3당 체제를 맞아 여야 모두 폭력있는 국회상 정립을 표방했지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총선 후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가 대화에 나설 때만하더라도 '협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 상시 청문회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아편의 세월호 특별법 공조 등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맞서 대립 국면으로 돌아선 모양새다.

특히 여야가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나서면서 대립이 격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뒤져 2당으로 몰렸던 새누리당 내에서 국회의장직 고수론이 새 나옴, 이를 위해 일부 탈당원의 복당 움직임이 결정적인 단초가 됐다. 이는 전형적인 제대그릇 쟁기에 다름 아니다. 야당은 민의가 만든 의석 수를 자당의

이익을 위해 붕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자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 3당은 원구성을 놓고 현실적으로 상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이밀고 반응을 살피는 데에만 골몰해 언제 제대로 된 국회의 틀을 갖추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치권이 대립하는 사이 민생은 설상가상이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악화돼 국민 건강 우려가 커지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문지마 범죄가 기승해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은 내 앞가림에만 몰두해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다.

20대 국회는 정치지형이 복잡해져 갈등 요인도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야가 정쟁에 휩쓸려 국민의 삶이 더 피해를 지면 불신과 불만의 부메랑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 만큼 정치권은 앞다퉈 공언했던 일 하는 모습으로 한 시 바빠 돌아가야 한다.

민선 6기 후반기 눈앞, 광주시 심기일전을

다음달이면 민선 6기 후반기가 시작되지만, 광주 현안들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신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대부분의 현안이 '상대방'이 있는 데다 일부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실마리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용객 급감으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광주역 활성화 문제, 운영권 특혜 논란을 빚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운영권 재협상 문제, 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 롯데마트 월드킴점 불법 전대 문제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시는 롯데마트 측과 불법 전대에 따른 비용 환수 등을 협상중이지만,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어 난관에 봉착했다.

문제는 지역의 핵심 현안들이 장기화되면서 행정력 낭비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우야 어쨌든 민선 6기 출범 이후 2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깊이 인식해 지역의 미래가 달린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운영권 재협상 문제도 손익평가위원회의 회의를 무산되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사용료 소송의 경우 11개월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둘러싼 광주시와 조합 측의 입장차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롯데마트 월드킴점 불법 전대 문제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시는 롯데마트 측과 불법 전대에 따른 비용 환수 등을 협상중이지만,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어 난관에 봉착했다.

문제는 지역의 핵심 현안들이 장기화되면서 행정력 낭비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우야 어쨌든 민선 6기 출범 이후 2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깊이 인식해 지역의 미래가 달린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곳에 다녀온 사람마다 한마디씩 했다. 재미있는 곳이 생겼다고. 소문이 자자한 '1913 송정역 시장'에 다녀왔다. 시장은 흥미로웠다. 꼭 세트장 느낌이 났다. 개성 넘치는 청년 상인들 가게와 터줏대감 상인들 가게가 조화롭게 어께를 맞대고 있는 곳. 정겨운 시골장터와 세련된 도시 거리의 절묘한 조합이다.

맥주집 '밀밭양조장', 양념 가게 '깡소년', 문구점 '역사사' 등은 특색 튀는 청년 가게다. '리 의상실', '만수상' 가게들은 옛모습을

점 입점과 과도한 임대료, 동종 업종 입점을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사연을 들어보니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계약을 했고, 업종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청년 상인들이 심심일만 돈을 모아 계약금 수백만 원을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입점 계획을 백지화시켰다고 했다.

요즘 '뜨는 지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다. 예술가·창업가들이 정착해 가치가 상승하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려 결국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

1913 송정역 시장

리는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이다. '홍대의 눈물'로 대변되는 흥대앞을 사진과 글로 써놓았다. 다행히 1913 송정역 시장은 이 흐름에서 비껴갈 수 있게 됐다. 최근 청년상인들과 건물주들이 임대 기간 보장, 적정 임대료 유지 등을 명시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협약을 맺었다. 광산구와 광주전남중기청도 지원을 약속했다.

멋진 '신사협정'이 잘 지켜져 '1913 송정역 시장'이 오래오래 재미있는 시장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판에 박은 프랜차이즈 가게, 삶의 흔적 하나 없는 삭막한 가게만 즐비한 곳은 어디든지 있지 않은가.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만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기(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20-0652	사진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